

전남 'e-모빌리티' 날개 달았다

영광·목포·신안 일대 272만9000㎡ 규제자유특구 지정
초소형전기차 등 5개 분야 10개 과제 실증특례 진행

민선 7기 전남도의 비전인 블루 이코노미 핵심프로젝트 'e-모빌리티산업' 부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전남도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택배, 관광, 사회복지, 대중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e-모빌리티를 활용한 사업 모델이 만들어져 새로운 시장 창출과 함께 산업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부지는 영광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 목포, 신안 일대 7개 구역에 면적만 272만9000㎡, 도로 37km에 달한다.

전남도는 24일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 1차 심의에 이어 23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해왔다. 주요 지정 혜택은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규제특례 적용(신속 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규제유예 및 면제 등이다.

'e-모빌리티'는 기존의 승용차와 차별화된 친환경 전기구동방식의 1-2인 탑승의

개인용 이동수단인 일렉트릭 모빌리티(Electric Mobility), 네트워크에 모바일 개념을 도입하는 의미인 일렉트로닉 모빌리티(Electronic Mobility)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기존 자동차산업에 기반한 법과 제도, 도로 상황 등 규제에 막혀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전남도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운행 범위 및 규격 제한 등이 완화돼 전남을 중심으로 기업 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전남도는 전남 지역 초소형전기차 생산기업인 캄시스 등 25개 중소·중견기업과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개 유관기관이 함께 초소형전기차, 4륜형전기이륜차, 농업용동력원반차, 전기자전거, 개인이동수단(PM) 등 5개 분야 10개 과제 실증특례를 진행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안 압해대교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진입 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 단절로 인한 불편을 해소한다. 초소형 전기차 사용이 제한됐던 60v 이상 고전원 전기 장치 탈부착 시스템도 장착할 수 있다. 4륜형 전기 이륜차에 물품 적재 장치를 설치할 수

있고 2인승 4륜형 전기 이륜차도 주행이 가능하다. 1인승으로 제한됐던 농업용 동력 원반차 승차 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해 농작업 현실을 반영했다. 개인용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운전면허도 면제된다.

이 같은 실증 특례사업을 통해 ABS·충돌 경고 장치·배터리 안전 캡·잔류 전원 경고 장치 등 관련 기술을 개발에 나설 수 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국비 261억원, 지방비 106억원 등 총사업비 407억원을 2021년까지 투입해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특히 주요 부품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에 국비 포함 325억원을 투자해 현재 40% 이하인 부품 국산화를 2020년까지 80% 이상으로 확대하게 되면, 제조업 연관 산업 상승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산업화에 뒤처졌던 전남이 틈새시장을 찾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내 산업을 선도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특구 지정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e-모빌리티, 에너지신산업, 드론' 등 블루 이코노미 혁신성장 3개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번에 e-모빌리티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도 나머지 2개 산업에 대한 특구 지정을 신청해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만들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ai@kwangju.co.kr



수영대회 열기 관중석 만원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13일째인 24일 밤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이 선수들의 금빛 질주를 응원하고 있다. 중반을 향하고 있는 이번 대회는 오는 28일 폐막 당일까지 경기가 진행된다.

한국선수들 없어도 '빅매치' 많다



광주세계수영대회

한국 출몰이 예선타락 아쉬움
200m 혼영·400m 혼계영 등
미국 독주에 중국·호주 도전

안방에서 열리는 세계무대가 주는 부담감 탓이었을까. 한국 경영 선수단이 출몰이 예선타락의 고배를 마셨다. 결선 진출보다 개인 최고기록 및 한국 기록 경신을 목표로 했지만 이 또한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기사 2·3·9·22면>

24일 한국 선수들은 오전 남부대 시립 국제수영장에서 열린 5개 종목 예선에 모두 참가했다. 가장 먼저 임다솔(아산시청)이 50m 배영에 출전했지만 28초50으로 40명 중 22위에 그쳐 준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이 종목 한국기록은 2016년 유현지가 작성한 28초17로 이번 대회에서 임다솔은 한국기록 경신을 목표로 했다.

100m 자유형의 양재훈(강원도청)도 49초37로 29위에 그쳐 예선 탈락했다. 한국 기록은 박태환이 보유한 48초42다. 이어 남자 개인 혼영에 나선 김민석(경기체고) 역시 2분02초36에 레이스를 끝내면서 29위에 머물렀다.

200m 접영에 참가했던 박수진(경북도청)은 2분07초73, 17위로 준결선 진출에 실패했으나 11위인 브리야나 스토크(호

주)이 기권 의사를 밝히면서 준결선 출전 기회를 얻었다. 박수진은 이날 유일하게 준결선에 진출한 선수가 됐다. 마지막 혼성 혼계영에 나선 이주호(아산시청), 문재민(서귀포시청), 박예린(강원도청), 정소은(서울시수영연맹)으로 구성된 한국 선수단은 3분50초89의 기록으로 17위에 랭크됐다.

한국 선수단의 잇단 예선타락에도 이번 대회 남은 경영 종목에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주-전남 팬들에게도 그 만큼 볼거리가 많다. 25일 광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리는 경영 경기 중 남자 개인혼영 200m 결선은 특히 관심이 쏠리는 한판이다. 남자 개인혼영 200m는 1973년 시작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남녀 개인전, 단체전을 통틀어 단일 국가의 독주가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다.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가 미국 선수로는 처음 이 종목에서 우승한 뒤 지난 부다페스트 대회까지 8개 대회 연속 미국 선수의

목에 금메달이 걸렸다. 펠프스가 2007년 캐나다 몬트리올 대회까지 3연패를 달성한 뒤 라이언 루티가 배턴을 이어받아 2009년 이탈리아 로마 대회부터 4연패를 이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체이스 칼리지가 결승에서 1분55초56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레이스를 마쳐 시상대 맨 위에 섰다. 칼리지는 개인혼영 400m에서도 우승했다. 체이스는 광주에서 2연패로 미국의 독주를 이어가기를 꿈꾼다.

2013년과 2017년 은메달을 딴 하기노 고스케(일본)가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가운데 2015년과 2017년에 2회 연속 동메달을 딴 왕순(중국)과 올 시즌 세계랭킹 1, 2위 기록을 가진 미첼 라킨(호주·1분55초72), 단컨 스콧(영국·1분56초65) 등이 개인혼영 200m에서 칼리지의 우승을 저지할 후보로 꼽힌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

정부, 일본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 의견서 전달

러시아, 한국 영공 침범 부인
"한국군이 러 군용기 안전 위협"

정부는 24일 오전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법령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업부 장관 명의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9시 51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의견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든 전략물자 관리 미흡과 양자 협의 미흡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내용과 조치

가 WTO(세계무역기구) 정신과 협약을 위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날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면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억지를 부린 데 대해 "일본은 일본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부분만 갖고 입장을 내면 될 것 같다"는 반박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 영공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답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독도 영공 침범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되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당시 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실장 등이 상황을 관

리하며 실효적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깊은 유감 표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러시아 차석 무관은 전날 오후 3시께 국방부에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적절한 사과와 유감 표명이 러시아와 외교부, 국방부, 언론 등을 통해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날 러시아 정부로부터 자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을 공식 부인하고 오히려 한국군의 대응 조치가 러시아 군용기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내용의 공식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19]
기록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Official FINA Partners: Nikon, Yakult, arena, Myrtha Pools, 农夫山泉, OMEGA, SAMSUNG, kt, 광주은행, KOSON, ASAHA AIRLINES, 新韓航空, 新韓航空, KIA, 롯데제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DOAN, MAMMOTION, Mikasa, PLANEW, 인제대학교, 2019, DODOL, AD, D, (주)세명여행, NHN 티켓링크, 제일 예프연스, 동영산업

National Sponsors: (주)세명여행, NHN 티켓링크, 제일 예프연스, 동영산업

Official FINA Suppliers: (주)세명여행, NHN 티켓링크, 제일 예프연스, 동영산업

National Suppliers: (주)세명여행, NHN 티켓링크, 제일 예프연스, 동영산업

National Supporters: (주)세명여행, NHN 티켓링크, 제일 예프연스, 동영산업

제18회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The 18th FINA World Championships Gwangju 2019

DIVE INTO PEACE

평화의 물결 속으로

선수권대회 2019.7.12. ~ 7.28. (17일간)
마스터즈대회 2019.8.5. ~ 8.18. (14일간)